

# CEO는 실천가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언덕위로 집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올라가려고 끙끙대는 일꾼이 있었다.

학자가 다가가서 그에게 말했다. “언덕의 각도가 몇 도이므로 힘의 방향을 몇도로 주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수레는 조금도 진전이 없었다. 정치가가 왔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모아’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열변을 토해냈다. 그러나 사람들은 냉담했다.

언론인은 수레가 잘 오르고 있는지, 정치가가 도와줄 사람을 동원하는데 성공하는지, 학자의 견해는 어떤지 취재하기 바빴다.

법조인은 차도(車道)에 들어와서 법에 저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팔을 걷어 붙히고 수레를 힘껏 밀어부치는 이가 있었다. 바로 경영자다. 수레는 힘차게 언덕을 올라가서 목표지점에 도착했다. 그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오래전에 들은 뼈가 있는 우스개 얘기다.

“우리는 원천이 어떤 것이든 그 위대한 사상들을 가장 열성적으로 추구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그 사상들을 채택하고 ‘실천’해왔다.”

잭 웰치의 말이다.

CEO는 실천가다. 실천하므로 가치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이 시대 경영자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리더다.

바로 경영이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바를 선택하고 이를 열정적으로 실천에 옮긴 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또 보상을 받는 일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일리있는’ 지식이나 말노름을 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선택을 강요받는다. 리스크(Risk)없는 선택은 없다. 최상이라고 판단한 선택을 기반으로 실천할 뿐이다. 그런데 그 실천에는 도처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게 마련이다.

온갖 외부의 반론과 비판의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작위적인 저항과 방해도 이겨내야 한

다. 또 도그마에 빠져서도 안된다. 더구나 제일 무서운 것은 스스로가 선택한 바에 대한 회의(懷疑)나 흔들림이다. 그것조차 극복하지 않으면 열정적이 될 수 없다. 열정없이 속도 가 나지 않는다.

경영에서 스피드는 생명이다. 정열을 바치지 않고 열리는 결실은 결코 없다. 그것이 실천이다.

바로 이 중심에 CEO가 존재한다. 따라서 CEO라는 실천가는 ‘긴장감 도는’ 현장에 있다. 아웃사이더나 연구실에 머무르는 사람이어서는 결코 안된다.

애플사 PC의 시조는 사실 스티븐 잡스가 아니라 스티븐 우즈니악이었다. 우즈라 종종 불리는 우즈니악은 천재적인 엔지니어였지만 경영마인드는 없었다.

잡스는 자신의 폭스바겐 버스를 팔고 우즈를 설득하여 그의 전자계산기를 팔아 1,300달러를 마련하고는 애플의 최초모델을 만드는데 도전했다. 정열에 넘치고 저돌적인 잡스의 도전정신과 실천력이 없었다면 애플사의 탄생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톰 피터스 말처럼 CEO는 일을 만들기(build-up)도 하지만 파괴를 감행하는 CDO(Cief Destruction Officer)여야 한다. 80년대 초 마흔 다섯이란 젊은 나이에 GE의 CEO회장이 된 잭웰치는 ‘웰치혁명’ 이라고 불릴 정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적인 기업문화를 이끌어내면서 GE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다. 따라서 그를 ‘창조적 파괴자’ 부른다.

한국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자.

과연 CEO는 CEO로서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할 수 있는가?

전문가의 지식을 강력히 흡수하며 추진력을 높이기보다 누구나 책임지지 않는 기묘한 방책으로 쓰이지 않는지 반성해 볼일이다. 그런 지식기반 사회는 바벨탑과 같을 뿐이다. 꾸준하고 열성적으로 땀이 배어 있는 참다운 지식이 뭉친 ‘지식 실천사회’여야 가치를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나마 알량한 지식조차 기득권화되어 있기 일쑤다. 이런 저런 환경이 얹혀서 ‘투명성’이 낮은게 당연하다.

이러한 한국의 일부 현실이 CEO의 훌륭한 개혁적 파괴력을 포함한 실천력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 즉, 훌륭한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게 아닌가. 모두 깊이 성찰해보아야 한다.

입으로는 정도경영(正道經營)을 표방하면서도 상당수의 CEO들이 불가피하게 마약중독처럼 편법에 중독되어 있는게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실패도 투자며 자산’이라는 신념으로 과감한 실천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더욱 필요하다.

CEO의 실천력! 그것의 증대야 말로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